

조계종 총무부장 종훈 스님 역사지구 총도감 지현 스님

자승 스님 6일 임명장 수여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9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신임 총무부장 종훈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자승 스님은 "이번이 33대 집행부의 마지막 총무부장 임명"이라며 "많이 남지 않았지만 총무부장을 중심으로 부실장 스님들과 협력을 통해 업무를 잘 이끌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종훈 스님은 능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1년 사미계를 받았다. 해인사 선원 등에서 정진했으며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자성교과신결사추진본부 결사총괄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와 함께 이날 자승 스님은 전 총무부장 지현 스님에게 견지동 역사문화 관광자원 조성사업 총도감 임명장을 수여했다. 자승 스님은 "종단이 꼭 이뤄내야 할 사업인 역사문화 관광자원 조성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신종일 기자

“불교인이라면 폭력은 안된다”

종평위, 서남아 갈등 성명 발표

최근 스리랑카와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강경파 불교단체들의 무슬림 공격과 방글라데시에서의 쯤머인 탄압에 대해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규탄하고 나섰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이하 종평위)는 9월 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남아시아의 소수민족 탄압과 종교 갈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종평위는 성명서에서 "폭력에 대해 비폭력 저항으로 맞서는 전통을 지켜온 불교도들이 스리랑카와 미얀마에서는 종교분쟁의 주도세력으로 변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더욱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자비와 생명존중의 정신으로 이 지역에 평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또한 스리랑카와 미얀마, 방글라데시 정부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신종일 기자

“대장경, 초학문적 접근 시급”

2013년 대장경축전
국제학술심포지엄

랭카스터 등 석학 참석
승려·신앙 등 고찰

2013대장경축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고려대장경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공개됐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조직위(위원장 홍준표)는 9월 3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2013대장경 세계문화축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고려대장경의 사상과 문화 그리고 체계”를 주제로 열린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일본 식민사관에 의한 대장경 영문표기의 문제점, △대장경 편집 총책임자인 수기대사에 대한 재평가,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제작된 대장경의 모본으로서의 고려대장경 위상 등이 발표됐다.

대장경 연구, 과학과 접촉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루이스 랭카스터 버클리대 명예교수는 고려대장경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랭카스터 교수는 “고려대장경의 연구 분야는 방대하기에 연구 방법이 한정돼서는 안된다”며 “차후 연구에는 건축학, 역사학, 예술, 언어학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랭카스터 교수는 “예를 들어 경판을 새긴 나무를 이해하고, 보존하는 건물, 판가가 서있는 흙, 단어가 나타나는 양상 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랭카스터 교수는 “최근에는 소프트웨어가 급속히 발전하는 환경에서 디지털화된 텍스트와 영상과 연계하는 부분이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제 개인차원



9월 3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로버트 버스웰, 루이스 랭카스터, 바바 히사유키 교수 등 석학들은 대장경 연구의 문제점과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는 집단 중심적 연구로 변화해야 한다. 특히 인문학 분야의 학문문화에서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장경 총책임 수기 대사 ‘주목’

로버트 버스웰 UCLA교수는 세미나에서 고려대장경 제작을 총책임한 수기(守其) 대사를 최초의 근대 문헌비평가로 평가하며 수기 대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재조명을 시도했다.

버스웰 교수는 수기대사를 ‘근대 문헌비평가의 아버지’로 불리는 에라스무스(1466~1536)보다 200년 앞선 탁월한 문헌학자라고 극찬했다.

그는 그 근거로 수기 대사가 남겨놓은 총 30권으로 이뤄진 ‘고려국신조대장교정별록(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을 제시했다.

이 책에는 수기 대사가 이끌던 교감단이 수천 개 경전의 다양한 판본들을 어떻게 수집, 교감해 대장경 편찬을 완료했는지에 대한 과정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버스웰 교수는 “수기 대사는 자신만의 교감원칙을 적용하면서 융통성과 직관

을 발휘해 서양 문헌비평가들이 초기에 범하기 쉬었던 오류를 피했다”며 “서양의 문헌비평가들이 성서 교정판을 출간하면서 발생했던 문제들을 이미 수백 년 전에 피했다는 점에서 더욱 위대하다”고 했다.

“국가 차원에서 대장경 신봉”

바바 히사유키 일본 불교대 외래교수는 일본에서 국가 차원에서 고려대장경을 독경하는 등 고려대장경 자체가 하나의 신앙으로 까지 발전했다는 주장을 해 눈길을 끌었다.

그동안 일본이 고려와 조선 정부에 고려대장경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지만 국가기도회에서 고려대장경을 임도록 했다는 사실은 처음 밝혀진 내용이다.

바바 히사유키 교수는 “당시 아시카가(1336~1565) 막부는 기도회에서 고려대장경 전독(轉讀·경전을 읽을 때 부분만을 읽는 것)을 하였으며 이러한 기도회는 교토와 수도권 일대, 혹은 전국에서 행해졌다”고 주장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총무원장 선거, 제도 개선 급선무”

불시넷, 5일 제5차 대화마당

“총헌준법에 맞춰서 총무원장 선거를 치르면 되는데 왜 이렇게 잡음이 끊이지 않는걸까?”

장주 스님의 도박 폭로전·자승스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수좌 스님들의 ‘자승 스님 재임 반대’ 등으로 연일 소음이 끊이지 않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대해 시민 단체들이 대화 마당을 열었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이하 불시넷) 제5차 대화마당이 9월 5일 템플스테이 기념관 3층 보현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자성교과신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 불시넷 정용기 운영위원장, 대한불교청년회 회장 전준호, 홍지연 대학생불교연합회 지도위원장, 이항민 인드라마생명공동체 연구소장, 최원형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장, 김두환 불교환경연대 조직국장 등이 참여했다.

최원형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장은 “(폭로전 등으로) 소문만 무성하고 신뢰를 쌓을 수 없다. 불교계 안에서 소문이 소문의 관점 즉 상식선에서는 판단할 수 없는 공동체 내부의 문제로 비칠 뿐이다. 선거 때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용기 불시넷 운영위원장은 수좌스님들의 주장은 종단 중법을 넘은 윤리 도덕적 문제라며 이것이 현 선거의 모순이며 종단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재가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가 되어 민심이 반영된다면 이런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을 거라는 주장 등이 제기 됐다. 정혜숙 기자 bwjns@hyunbul.com

조계사에 나투신 관세음보살

조계사, 5일 관세음보살 점안의식 봉행

서울 종로 조계사(주지 도문)는 9월 5일 새로 조성된 관음전에서 주불로 봉안된 관세음보살상 점안의식을 봉행했다.

이날 주지 도문 스님은 “수행하는 대중을 위해 공양을 올리는 것이 더 큰 공덕”이라며 “많은 불자가 관세음보살님과 함께 마음을 달래고 수행할 수 있도록 관음전 마련에 애써줘 감사하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점안한 관세음보살상은 통상적인 보살상과는 다르게 반가사유상으로 대중들이 법당 안에 들어섰을 때의 눈높이와 같도록 했다. 고해에 허덕이는 중생들이 관세음보살님께 의지해서 헤쳐나가는 데 거리가 없도록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후불탱화 대신 봉안한 99존의 관세음보살상은 과거, 현재, 미래에 상주하는 33분 관세음보살을 각각 의미한다. 신종일 기자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이 9월 5일 새로 조성한 관음전 주불 관세음보살 점안식을 봉행하고 있다.

불교언론인모임

‘인사클럽’ 창간호 나와

불교언론인모임 ‘인사클럽’ (회장 윤정광)이 창간 회보 ‘B&I’를 발간했다.

인사클럽은 “‘B&I’의 B는 Buddha(부처님)와 Buddhism(불교), I는 Insaclub(인사클럽), Insight(통찰)의 뜻을 담았다. 또, Eye(정견)를 덧붙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불교언론인들의 모임인 인사클럽이 불교의 내일을 밝히겠다는 서원을 ‘B&I’로 표현했다. 이 6가지 가치를 지면에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B&I’ 창간호는 △이학종 미디어 붓다 대표의 ‘불교언론(인)의 지향과 자세’ △정성운 불교포커스 주간의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선거, 전망과 과제’ △윤정광 인사클럽 회장의 칼럼 ‘떠날 때는 말없이’ △윤남진 소셜리서치&멘토르 공동대표의 ‘조계종 자성교과신결사추진본부의 허와 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종일 기자

사회와 소통한 조계종 33대 집행부

조계종 성과 자료집 발간... 9월 중순 배포

오는 11월로 임기가 마감되는 조계종 제33대 집행부의 4년 성과에 대한 평가집이 발간된다.

조계종은 제33대 집행부의 성과를 담은 <제33대 집행부 성과 자료집>을 9월 중순경 발간한다.

지난 2009년 10월 31일부터 2013년 8월까지의 주요 중무기록 및 성과를 담고 있는 이 자료집은 집행부 사상 최초로 종단 4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 온 결과물이다.

제33대 집행부는 성과 총평에서 “사회와 역사 앞에 나서서 소통”했으며, “종무행정을 중심으로 불교중흥 모색”했고 나아가 “대승보살의 길을 걷어가기 위한 승가교육 전면개선”에 나섰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자성과 쇄신”을 통해 “종단 운영의 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전통문화 보전과 계승”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주요 성과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정리가 이뤄졌다. 33대 집행부는 주요 중무 성과로 △화쟁위원회, 노동위원회 출범 △이웃

을 위한 자비나눔 확산 노력 △기초교육과정 혁신을 통한 현대승가상 구현 △종단 승려복지제도 시행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노력 △쇄신입법 제정 및 시행 △1000일 정진, 아난법석, 무차대회, 대중공사 등 총 35개를 내놴.

향후 한국불교가 해결해야 할 중장기 과제 제시됐다. 성과 자료집이 제시한 과제는 통합적인 종단 운영을 비롯해 △한국 불교의 사회적 역할 강화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을 위한 노력 △종무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중무역량 강화 등이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지우 스님과 함께 하는 범음의 큰 메아리!

● 지우스님 독경 CD 신명나는 화심곡



* 지우스님 악력 *

- 1967년 대구 안국사 보성스님을 은사로 출가
- 영산재 범음법대 바라밀 예술단장(법패,바라춤,범곡,회심곡)
- 문화공보부 등록제411호 홍보위원
- 동국불교 전법대학교 졸업(1992년 1기생)
- 영남미술작가협회 영남총본부심사위원
- 한양미술작가협회(영남총본부 초대작가)
- 현 바라밀예술단 단장
- 2003년 3월해군 참모총장 대장 장정길 감사패
- 2006년 5월제8군단장 중장 이상위 감사패
- 2007년 2월 군수사령관 중장 양원모 감사패
- 2007년 10월 제1군사령관 대장 김태영 감사패
- 2013년 4월 경북직업훈련고 도소장 이경우 감사패

● 각종행사 사진



● 바라밀 예술단이 하는일



영산대제 및 산사음악회, 예수재, 49재, 구병시식, 차량고사, 안택 등 각종 불교행사를 깊은 신심으로 지극정성 여법하게 봉행하여 드립니다.

<작법부 (바라춤, 니비춤) 화심곡>



● 법당마다 가득자리를 채운 지우스님 작품들

